마을자치연금 첫 도입

익산시, 첫 운영 주체서 태양광 시설 준공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자치연금'을 바탕으로 농촌 마을공동체 회복에 집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마을자치연금 첫 운영 주체인 성당포구마을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시설을 준공한다.

이 시설 조성을 위해 익산시 등은 1억5100만원을 투자했다.

이 시설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마을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10만원씩의 연금이 지급된다.

성당포구마을 전체 주민 중 35% 이상이 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 마을은 또 고려시대부터 세곡을 운반하던 포구의 역사와 농촌문화 환경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으로 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성당포구마을을 시작으로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마을자치연금 참여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법인이 조성돼 있어야 한다.

시는 마을자치연금을 통해 농촌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노인층의 노후보장 체계를 구축,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한다.

이 연금에는 국민연금공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새만금개발공사, 한솔테크닉스, 우리은행 등의 기관들이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도시민들의 농촌 회귀에 일조한다는 구상이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맞춰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연금지급으로 시민들의 노후 소득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주도적 혁신 모델로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연금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고품질쌀 생산 위해 거름 적기 · 적량 사용 당부

신동진벼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사용적기 대대적 홍보

군산시는 고품질 군산쌀 안정생산을 위해 벼 이삭거름의 적기·적량사용과 관련한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삭거름은 벼 이삭이 줄기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할 무렵에 효과를 보기 위한 웃거름으로 일반재배의 경우 이삭이 나오기(출수기) 25일 전,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15일 전에 주는 것이 적당하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벼 영양생장기간 일조시간이 전년대비 8.1시간이 길었고 적산온도는 13도 정도 높았던 기상분석 자료에 따라 군산 대표 품종인 신동진벼의 경우 1모작 기준으로 오는 8월 15일경에 출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이삭거름 적기는 7월 30일 ~ 8월 1일경이다.

벼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가 너무 빠르면 등숙불량 및 도복에 약하고 늦어지면 목도열병 또는 이삭도열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도복, 수량, 미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적기 시용이 중요하다.

비료양은 시에서 공급하는 맞춤비료 기준으로 10a당 15kg 내외로 과비가 되지 않도록 시용하며, 밑거름 시용량이 많아 잎색이 짙은 논은 표준시비 기간보다 일주일정도 늦추어 주고 염화가리만 10a당 3~4kg를 시비하며, 완효성 비료를 시용한 논은 이삭거름을 생략해도 된다.

이삭패기(출수기)전 25일부터 이삭팬 후 10일까지는 벼가 물을 가장 필요로하는 시기이므로 논물을 2~4cm 깊이로 걸러대기를 실시해 뿌리의 활력을 높여 줘야 하며, 장마철 잦은 강우로 벼가 웃자라거나 약해져 도열병, 잎짚무늬마름병, 흑명나방 등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용약제로 종합방제를 해야 한다.

김미정 기술보급과장은 "작년 태풍으로 인해 수확기 벼 도복 피해가 많았는데 이것은 질소질비료 과다 살포로 벼 줄기가 연약해졌기 때문이다"며 "고품질 군산쌀 생산을 위해 도복피해가 없도록 벼 이삭거름 적기·적량 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개정동 주민 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군산시 개정동의 한 주민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가족 전체가 받은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전액과 몇 년 동안 모아온 저금통을 선뜻 내놓아 지역사회의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군산지구 회장이면서 개정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고석태(71)씨는 14일 개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일가족의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전액(80만원)과 몇 년간 모아온 저금통과 일부 사비를 보태 1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고 씨는 "이번에 지급받은 재난기원금을 좀 더 뜻깊게 사용하고 싶어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기부하게 되었다."며 "코로나로 어려워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개정동장은 "평소에도 지역사회 일에 발 벗고 나서며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석태 고문께 감사드리고 전달해주신 기부금은 관내 거주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면서 "작지만 큰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사회의 나눔운동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개정동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 수 있는 선풍기를 구입해 전달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은 군산청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참석한 단체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뜰, '군산청년 워크숍'

군산시, 참석한 단체들과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은 군산청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참석한 단체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일 실시된 이번 워크숍은 군산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군산 청년활동의 생태계를 구축, 활성화하기 위해 ▲군산시 청년뜰(청년센터·창업센터) ▲군산시청년협의체 ▲청년기획단 청기와 ▲군산청년포럼 ▲군산청년회의소 ▲로컬라이즈 군산의 대표 청년들이 모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년뜰은 5개 청년단체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청년의 성장과 군산청년의 안정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군산 청년 취·창업 성장지원 ▲군산 청년 자립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동사업 ▲협약기관(단체)의 공동연구 및 전문교육 연계지원 ▲지역 내 청년활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교류 및 협조체계 마련에 대해 협력하고 군산 청년 거버넌스를 구축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군산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참여유도, 군산 청년의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청년 정책·역량강화·일자리 창출 플랫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뜰 청년센터·창업센터 청년지원사업부(063-471-155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방역안전 감시단 특별 방역활동 전개

군산시 27개 읍면동 700명의 방역 안전 감시단이 특별방역활동을 전개하며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선제적으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읍면동 자생단체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방역 안전 감시단이 오는 25일까지 특별 방역 활동 기간으로 정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특별 방역활동 기간동안 방역 안전 감시단은 음식점 및 카페 등을 위주로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 등에 대해 계도 및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로 야외 활동 중 마스크를 미착용한 시민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안내하며 지역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방역안전 감시단 A씨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우리 방역안전 감시단의 활동이 확산 방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올바른 재활용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군산시는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올바른 재활용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170여명의 자원관리 도우미를 배치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현장에서 직접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분리배출 요령을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물 배포, 아파트 방송문안 송부, 환경미화원 현장계도,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와 같은 자생단체를 통한 홍보 등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의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비닐과 플라스틱 그리고 새롭게 별도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다.

비닐류의 경우 색과 상관없이 이물질과 물기가 없이 깨끗한 비닐을 내부확인이 가능한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개회 추경안 등 심의

익산시의회가 14일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 오는 30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25건의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하반기 계획 보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통해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예결위는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익산시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시의회는 또 중앙동 침수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침수피해에 따른 시의 추진상황 및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전문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유재구 의장은 "중앙·매일시장 일원 침수로 피해입은 상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